

신안군 'AI 의료기기'로 섬 주민 생명 구했다

5개 보건진료소에 '메디바' 도입
혈압·혈당 등 지표 실시간 관리
80대 어르신 심장질환 조기 발견

신안군이 도서지역에 AI 기반 의료기기를 도입해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 섬마을 주민의 생명을 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매화도에 거주하는 80대 김복순씨는 보건진료소에서 평소처럼 검진을 받았다. 이때 사용된 장비는 AI 의료기기 '메디바'였다.

기기는 김씨의 심전도를 분석하던 중 부정맥 의심 징후를 포착했고 즉시 데이터를 광주 선한병원으로 전송했다.

선한병원 의료진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심



신안군 섬 보건진료소에 도입된 AI 의료기기 '메디바'로 주민 건강지표를 확인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실 초기 박동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을 확인했다. 곧바로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목포 병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중증 대동맥판 역류와 관상동

맥 폐색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 AI 덕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수도권 심장 전문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기계가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반신반의 했는데 큰 병원에 가보니 진짜 병이 있었다"며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주민들에게 AI 의료기기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안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취약지역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광주 선한병원과 협력해 5개 보건진료소(매화·병풍·다물·대둔·당사도)에 AI 기반 의료기기를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주민들의 혈압, 심전도, 혈당 등 6가지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병원 의료진에게 데이터를 자동 연계한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AI 기술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확대해 더 많은 섬 주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영광군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탄력

3차례 도전 끝 기재부 최종 심사 통과
401억 확보... '체류형 관광도시' 기대

영광군의 숙원인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를 최종 통과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끝에 3번째 만에 통과되면서 서남권 관광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사업' (188억원)에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사업 401억여원을 확보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광군



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주요 사업은 ▲백수해안도로 경관 인프라 확충 ▲노을전시관(조감도) 리모델링 및 미디어 파사드 조성 ▲칠산타워와 목도를 잇는 미디어 라이트 연출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첨단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통해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 중심지'

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불갑사 관광지와 종교순례관광을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관광벨트도 추진,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관광객은 현재보다 25배 늘어난 100만명 이상으로 전망되며, 7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3월 전남도는 2010년 합평 사포 관광단지 지정 이후 15년 만에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를 28번째 신규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노을·야간경관을 어우른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영광을 서남권 관광의 허브로 도약시키고 관광격 천만명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해남군 현안 국정과제 반영... "지역 발전 기회로"

21일 4대강 회복 기자회견
22일 RE100 산단조성 포럼

해남군 주요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명현관(사진) 군수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 군수는 전날 열린 직원 정례회에서 정부 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의



특히 명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

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역대 최초로 22개 기초지자체별 '우리동네 공약' 1천200개를 발굴해 철도·도로·문화·복지·일자리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오는 21일 영산강·금강 하구 복원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일에는 서울에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명 군수는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준비해온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군은 최근 청소년문화의집 2층 조리실에서 중장년 1인가구 20여명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중장년 1인가구 요리 체험 '호응'

고독사 고위험군 사회관계망 지원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조리실에서 고독사 고위험가구(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으로 '행복한 밥상♥웃음이 한상' 요리교실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요리교실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20명, 자원봉사자 3명이 참여하며 오는 2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요리교실은 단순히 요리 체험을 넘어 중장년 1인가구 대상자들이 사회로 나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눠 실천하는 참여형

재능기부 활동이다.

요리에 참여한 한 중장년 1인가구는 "집에서만 지내던 저에게 뜻 깊은 경험의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줄 수 있어 정말 보람찼다"고 말했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중장년 1인가구 대상자들이 답답한 집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나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완도 농촌치유산업거점센터조감도(왼쪽)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특산물 연계 제품들. <완도군 제공>



완도군 "내년까지 농촌 치유산업 플랫폼 구축"

70억 투입 인재 양성 등 집중

비파일 추출 제과·음료 개발도

완도군은 19일 "내년까지 완도형 농촌 치유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 2021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70억원(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 지역 우수형 자원과 주민 조직을 연계한 치유산업 거점 조성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신활력 플러스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총 219명이 수료했고, 지역 활동가 모임 5곳을 법인화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 6곳, 비사회적 경제 조직도 9곳을 발굴했다.

특히 완도 대표 특산물인 비파일 추출물의 기능성(항산화·항 당뇨·항 응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내 학회지에 투고했고 이를 기반으로 비

파 제과류 6종과 음료 2종을 개발했다.

제품들은 완도와 광주시 등 카페에서 시식·테스트를 거쳐 향후 거점센터에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 과각을 활용한 테라리움 꾸러미 및 생활 오브제 등은 '2024 ESG 친환경 대전 박람회'에 출품됐으며 체험형 콘텐츠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 활동가 모임의 상품 고도화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품미 에센스(조미 소스)는 완도 농특산물 기반의 소스 특허 등록 및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고, 큐텐(일본), 네이버 스토어, 쿠팡 입점 등 국내·외 판로 개척에 성과를 냈다.

군외면 불목리 폐교 부지에 조성 중인 '완도 농촌 치유산업 거점 센터'는 지난해 말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향후 농촌 치유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윤보현기자

진도군, 지역 현안 특교세 16억 확보

낙석위험 구간 등 정비

진도군은 19일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고군면 두목재 낙석위험 법면보강(12억원), 진도읍 수유지구 용수로 설치공사(4억원)에 투입된다.

특히 고군면 두목재 도로는 통행량이 많음에도 급경사와 취약한 지반으로 낙석 위험이 상존해 왔다.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우려까지 겹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이번 예산은 낙

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 강화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수유지구 역시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군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정비하고, 영농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군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군민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목포시 자율방재단, 온열질환 예방 앞장

무더위 쉼터·축제 현장 점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7-8월 동안 무더위 쉼터 200곳을 점검하고 지역 축제 현장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 점검에서는 ▲냉방기 가동 여부 ▲휴식공간 청결 상태 ▲어르신 건강·안부 확인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수분 섭취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했다. 또 지난 16일 열린 목포 해상W속 축제 현장에

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열고 부채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김재진 목포시 재난안전과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원배 단장과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폭염뿐 아니라 호우특보 시 예찰 활동,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대설 시 제설 활동 등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안전한 목포 구현에 힘쓰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